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지음

조중권 옮김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2018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긴이 | 조중권

펴낸이 | 김영균

재판발행 | 2018. 12. 9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 6. 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사진 | 안성식

편집디자인 | 장한디엔피

ISBN | 978-89-89741-93-0

정가 1,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연구의 목적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한 성경 공부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들에 대하여 묻는 전화나 편지를 받습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들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과 시편 19장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범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동안 그것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신의 섭리의 영원성(롬1:18-22)을 알기에 충분한 빛이 주어져 있습니다(요1:5). 이 지식은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 나라와도 상관없이, 인류의 모든 종족에게 흐르고 있습니다(시편 19:1-4).

이러한 깨달음은 죄 안에 죽어있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사야53장)을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각이나 철학을 취하거나 개발하여,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을 만족 시키려 하나, 그에 따라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이며 하나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세상에 남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 안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와 이브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자신들을 덮으려고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여 모든 잘못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

의 방법을 전적으로 믿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자기 방식으로 노력하든지.

사람의 혼에 으뜸가는 대적인 사탄은 사람들이 구제 불가능한 종교심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무화과 나무 뿔개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살인자며 거짓말쟁이(요8:44)라고 하시는데, 그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이 지옥 불에서 영원히 고통 받기를 고대합니다. 지나간 6000년 동안 그의 위대한 성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교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대단히 의롭게 보이고, 대단히 아름답게 (pretty) 보이며,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들과, 성경에서 삶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것들에 여러 방법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육신적 정욕이나 재미있는 것, 약물, 알코올 등과 같은 것들보다 종교적 수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혼을 지옥에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는 않지만, 구제불능의 종교심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유일한 최종 목적지는 하늘과 지옥으로, 누구나 그 둘 중 하나로 가야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성경을 앞에 놓고, 세상의 너무도 흔한 종교적 연습과 가르침에 대하여 진위를 가리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된 하늘로 가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고안해 낸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당신을 하늘로 데리고 갈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종교적 의복으로 위장

한 사탄의 속임수는 마귀가 설계한 것으로 사람들을 어둠 안에 가두어 결국에는 그들의 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저는 성경에 관한 종교적 질문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다투며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믿음이 최고인가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을 들고 이러한 종교적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날에 우리가 서 있는 앞에 계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당신의 죄와 당신 자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의 짐으로부터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질문 #1

절대 다수의 공통적인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과 신뢰의 기초가 되며 삶을 인도하는 또 다른 권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기록된 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에 빠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시대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1장 1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 정상에 올라 자신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베드로후서 1장 18-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에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신이나 어떤 사람 또는 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있더라도, 기록된 성경이 생명과 믿음

의 안전한 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성경에다가 교리나 신조 또는 법령 등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종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또는 그들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주장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종교적 관례나 풍습, 또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8:19-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 진리를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을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당한 방법은 더 확실한 예언 - 기록된 성경을 찾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시편 119:105편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또한 시편 119:130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이 말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안에는 빛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 #2

자주 받는 질문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교파에 나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위하여 침례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장로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성공회교도가 되어야 하나요?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 합니까? 감리교 신자가 되어야 합니까? 제7일 안식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만약에 구원이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하나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교회에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교회 소속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각종 명칭의 교회들은

모두 자신들의 교회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정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써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반대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불 못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자신께서 모두 지불하여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씻기는 것이고, 그것이 용서되는 것이며, 그것이 완전한 사면인데, 이러한 것을 어느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의 세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기 신약 교회시기에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의 증언이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과 같은 확실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12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심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길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침례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며, 성공회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며, 감리교도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도 아닙니다. 제7일 안식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의 이름도 아니며, 모든 교회도 아니며, 무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회도 당신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도 당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되살아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을 찾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 곧 예수 그리스도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 즉 교리적 진리를 묶고 푸는 능력을 단련하기 위하여 함께 만났습니다. 그 열두 사도들은 땅 위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결

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늘 왕국의 열쇠가 주어진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는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 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명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15:7-11)

반복은 좋은 교육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침례교회의 은혜도 아니고, 감리교회의 은혜도 아니며, 장로교, 성공회, 오순절교회, 제7일 안식교, 성령교, 사도교회, 초교파 교회, 로마 가톨릭, 은사주의 교회의 은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만약에 당신이 구원을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채찍과 매를 맞았습니다. 한 밤중이 되어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간수가 감옥으로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30, 3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자,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사8:20)

어떤 교회도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도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 짐을 지운 것입니다.

질문 #3

이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제임스 형제님, 내가 종교적 지도자를 아버지나 지도자 또는 랍비, 또는 지존(至尊)(reverend)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종교적 지도자를 그 권위적인 위치나 지위를 떠나서 더 돋보이는 명칭으로 불러도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괜찮은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하여 탄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질문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서 종교적 지도자를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마23:8-10)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불리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1. 랍비라고 불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사람은 다만 형제일 뿐입니다. 모든 제자들도 형제들입니다. 어떤 형제보다 높은 사도나 형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제를 가리킬 때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아버지라고 불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며,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스스로 높임을 받을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아셨으며, 그 분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일에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속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3. 스승님(master)이라고 불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아침의 칭호는 지존(至尊)(요 32:21-22)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시편 111:9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시다. 시편 111편의 1절을 보면 111편의 내용이 주님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 9절에서 주님에 대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칭호는 오직 주님에게만 합당한 말입니다.

누구의 칭호가 지존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목사나 신부를 절대권위가 있는 칭호로 부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알파와 오메가로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세주로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창조주로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자로 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칭호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시편 119편 9절에 따르면 모든 하나님의 칭호의 바탕은 지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칭호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신성 모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존이나 아버지, 랍비, 지도자 또는 그와 같은 용어를 ‘존경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 할 것입니다. 교리와 말씀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두 배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딤후5:17).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들의 봉사에 비하여 너무도 적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지 않고도 그분들을 존경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보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4

다음의 질문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합니까? 또는 대화를 해도 됩니까? 또는 어떤 중개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나와 하나님 간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구약에서는 종교적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은 히브리 백성들을 돕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시스템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나타날 것들의 모형이나 그림자 또는 예시로 주어졌습니다.

이에 관한 큰 예시는, 백성들 대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양의 피로 사신 나라(출애굽기 12장)이기는 하지만, 그 백성들 대신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중개자로서 섬긴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붙잡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중보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아론과 그를 뒤이은 아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직분은 오로지 죽거나 파멸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각성하도록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몇 년마다 대제사장은 숨을 거두었으며, 새로운 사람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에서, 옴은 이러한 곤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 (욥기9:30-31)

욥은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하거나 선하게 할 수 없음을 알았으며, 그를 만드신 분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3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리 갈 수도 없고”

다음은 욥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욥은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서서 화해시켜 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재자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가 있어서 그 양쪽의 손을 잡고 화해를 시켜서 친분을 즐기도록 할 중재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중재자에 모든 동상이나 형상, 또는 우상, 십자가나 부적 같은 것들, 또는 어떤 죽어있는 것들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직자는 어떤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침례요한이나 또는 마리아, 베드로, 요한 또는 사도들처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직자들 중에서 중재인이나 조정자 역할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 봅시다. 그들은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안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로에 대한 축복을 하셨더라도 그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을 중재자나 조정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선택하셔서(그녀는 처녀였음, 눅1:27), 성령께서 그녀를 덮으시고 그녀의 자궁 안에 거룩한 것을 만드셨다고(눅1:35)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 거룩한 것은 몸이었습시다(히10:1-8). 이 인간의 몸 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시던 날에 이름이 예수라고 붙여졌으며, 그날에 참석하였던 천사는 그분이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임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위대한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
접을 받으셨느니라.” (딤후3:16)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혈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가 흘렀습니다
(행20:28).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킬 중재자가 없음으로 해서 다시는 탄식
하거나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성
경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한 하
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여섯 분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백만 분이 계신 것도 아
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두 분의 중재자가 있는 것이 아
닙니다. 여러 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중재자, 전구자
(轉求者)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더 확실한 대언을 통하여 볼 때, 누가 중재자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5-6절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도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한 분의 중재자를 통하여만 하며, 그분이 자신의 손을 당신과 하나님의 손 위에 대시고 둘 사이를 화해시킬 것입니다. 그 중재자는 한 사람 그리고 오직 한 분 -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놀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일생 동안 배웠는데...”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사8:20)

질문 #5

다음 질문은 그야말로 수백, 수천 만 명 사람들의 영원한 목적지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들의 국적이나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제임스 형제님,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여기가 사탄이 즉시 개입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길에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받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라벨을 붙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적그리스도 이

거나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주님께서는 복음에 대하여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며 주님의 사도들로부터 선포된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복음에는 3가지의 큰 중점이 있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2. 그분은 묻히셨다.
3. 그분이 다시 살아 나셨다.

친구들이여,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죄를 지었고, 그 죄는 값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지불방법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당신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묻힐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당신이 나중에 죽는 것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처럼 그분은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권능도 갖고 계셔서 그 생명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포함된 것을 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의 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당신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 말에 매우 집중하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마음을 정하였다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하는데, 당신이 교회에 나가서 빵 조각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을 들을 때, 이러한 것에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잔에 든 음료를 훌쩍 마시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까? 이런 말에 의문을 가져 보았습니까?

잠깐만, 예수님을 잡아 먹느냐 아니냐에 관한 논쟁은 하지 맙시다. 이 말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입 안으로 집어 넣고서, 그리고 그것을 씹어서 먹으면 그 분은 죽습니다. 그분은 희생을 당한 것이며 그리고 당신의 몸 안에 묻혀서 안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 그분이 다시 사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묻힌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 나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당신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는 날에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 나셔야 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땅 속에 묻혀있기만 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얻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 메시지 속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함께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세심하게 듣고 또 듣게 만드시기를 간청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0절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

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바치고 또 바치고 계속해서 바치는 헌물,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종교적 양심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그 낡은 방식의 시스템을 제거하시고 두 번째의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황소가 아니고 염소도 아니며 어린 양도 아니고 숫 양도 아니며 멧비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구약의 희생물들처럼 지속적으로 드리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희생물들이 당신의 죄가 없어졌다는 확신을 못 주었는데, 두 번째 희생물 -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물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단 한번 영원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사야 8:20)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벧후 1: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은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몸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희생물로 드리졌습니다. 그분은 한 번 죽으셨으며,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어떤 형식, 모양, 방법으로든, 어떠한 여건에서도 그 죽음은 다시 되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은 구약의 희생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현재시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

속하여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죄를 없앨 수 없는 종교적 연습에 참여하는 것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희생물을 아무리 여러 번 먹는다 해도 당신의 양심은 그 받아들인 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셨다면, 당신은 다시 그것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과 혼 안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서 나쁜 것을 몰아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 또 다시 반복하여 받아들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여, 유용한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시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히브리서 10:11-13)

성경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며, 묻히시고, 다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당신이 구하여야 할 일은 당신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다.

그분이 죽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물이 되었다.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그것은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사망으로부터의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사람이신 그리스도 - 곧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한 분이신 중재자, 하나님과 당신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분 - 안에 완전히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고린도전서 15:5-8).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사도행전1, 누가복음 24장),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히브리서 10:12, 12:2),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재를 위하여 항상 살아 계십니다(히브리서7:25).

당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단 한번, 영원히,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희생 안으로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6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형제님,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된다는 데 이르

렸습니다. 나는 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요? 제임스 형제님, 나는 자백
합니다. 너무도 여러 가지 종교적 가르침이 있지만, 나는 자백을 하려
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백을 하기
위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인가요? 당신은 저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
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저를 만나서, 저에게 자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죄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자백을 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
복음 6장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다른 사람
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
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한 분이 누
구입니까? 이 땅 위에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
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사랑하는 혼(soul)들이여, 만약에 사람에게로 간다면, 그는 당신에
게 기도를 반복해서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마 6:7)

이교도들은 말을 한없이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밀실에 들어가서 자백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사람에게 자백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하라.

하늘에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너 자신의 혼잣말로 하라.

공공 장소에서는 수천 명에게 둘러 쌓일 수도 있으며, 교회 건물 안에서는 수백 명이 주위에 있으니, 자기 혼자 말고는 아무도 없이, 하나님께 사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단 번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당신의 구원자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며, 단 한 분의 중재자이시며,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단 한 분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인격과 전체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자백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홀로 계시며, 당신의 도움이나 당신의 종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형제님, 그 말이 확실 한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할 일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히브리서 7장 19-28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따라서 우리 마음에 아무 의심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히7:19).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더 나은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구약의 제사장직분을 맡은 자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음)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당신은 사람인 제사장에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후 무덤에서 3일 낮 3일 밤을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이분은 한번, 단 한번만 죽으셨고, 영원히 한 번이므로, 이분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교회가 아니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며, 종교도 아니고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며, 공적으로도 아니며, 종교적인 실행으로도 아님)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

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7:20-27)

질문 #7

하나의 질문이 더 남았는데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구원자 -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신 분, 영원히 살아 계신 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15:11)

이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분께 고백을 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혼의 영원한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지 않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까?

“나의 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혼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외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3)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에 주의 기올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벧후1:19)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사8:20)

어둠 안에서 죽어서 영원히 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 -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오늘 그 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고 맡기십시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32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8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32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4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침송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2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아훼'와 '야호'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80	사무엘 킵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Highest) 수준의 생활(生活)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 종 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 5000원가량 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 (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

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롬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 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 드립니다.



지은이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낙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